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2년 11월

선교편지 제 158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는 가운데 이곳 선교지 '디고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포장 안된 주요 도로 마다 새롭게 설치하는 하수도 배관과 포장 공사로 디고스 전체가 마치 커다란 공사판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종횡무진 달리는 오토바이로 가득한 거리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마침내 큰 길 교차로에 '신호등'도 등장을 했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문명의 척도로 여겨지는 '맥도날드 (McDonald's)'가 마침내 디고스에 1호점을 개장하여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지인 음식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저로서도, 맥도날드의 개장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고스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 갈 때, 지친 몸과 출출한 배를 달래며 달리는 차에서 먹는 '빅 맥 (Big Mac)'은, 마치 오랜만에 고향의 맛을 보는 것처럼 여기가 선교지인지를 잠시 잊게 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맥도날드에서는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빅 맥'을 주문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맥도날드의 주된 메뉴는 '빅 맥'이 아닌, 현지인들의 입 맛에 맞게 개발된 신종 메뉴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메뉴는 빵이 아닌 '닭 튀김', '밥', '스파게티'와 같은 종류이고, 음료수는 콜라나 커피가 아닌 '아이스 티'와 '파인애플 주스'류입니다. 즉, '빅 맥'과 같은 매우 특별한(?) 것을 주문하면 10~15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빅 맥' 식재료가 없다는 종업원의 대응에 허탈하게 포기해야만 합니다. 또한 콜라가 아닌 아이스 티와 먹으며, 새로운 조합을 경험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에게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에서 '빅 맥'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페스트 푸드 체인점 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내에서는 버릴 수 있는 일회용 포장이나 용기가 아닌 플라스틱 접시와 일반 수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먹고 난 이후에도 일반 식당처럼 매장 직원이 친절하게 모든 뒷 처리를 해 줍니다. 그 당당한 맥도날드도 이곳에 와서 철저히 '현지화' 되어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먹거리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현지화'는 모든 분야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외래의 문화, 종교 등이 유입 될 때,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현지화의 과정'을 거치지만, 특히 필리핀에서 '종교'의 현지화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필리핀은 독특한 역사를 가진 아시아 유일의 가톨릭 국가입니다. 어떤 특정 종교가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국민 종교로서 오랜 시간동안 정착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종교가 계속 변화해 왔고, 유럽도 가톨릭 국가로 시작하여 이제는 나라마다 대표 종교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국가로 전환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탄탄한 가톨릭 국가로서 이미 500여년의 역사와 함께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가톨릭 신자로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톨릭 신자는 필리핀의 인구 증가와 함께 매년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20년에만 160만명이 가톨릭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전 세계 가톨릭 국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양 강국이었던 스페인은 '하나님의 영광 (God), 스페인 제국의 영광(Glory), 그리고 황금(Gold)'을 기반으로 하는 소위 '3G' 정책으로 필리핀 가톨릭 선교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선교의 열매(?)는 가히 놀랄 정도로 전 국민을 가톨릭화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와 어울리지 않는 무력과 돈이 연결된 강한 식민 정책으로 인해서 비록 집단으로 개종을 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결국은 스페인의 가톨릭 선교는 필리핀의 토착 종교인 정령숭배와 무속신앙으로 가득한 가톨릭의 '현지화'로 변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본질이 변질되었고, 행위 종교와 범신론적으로 전락하여 토착화된 그들의 전승과 전통을 따라 가톨릭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종교를 온 국민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통해 단단하게 굳어진 가톨릭이라 하는 이들의 믿음과 행위를 보면, 마치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들 빈틈이 많은 것처럼 평화스럽게 웃고 있지만, 도무지 변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맞이하고, 준비하는 종교개혁 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각오가 새롭습니다. 한국의 교회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록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복음이 아닌 오랫동안 굳어진 유교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여 '조상 제사와 점', 그리고 '길일과 흉일' 등에 자유롭지 못하고 갈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톨릭 국가라고 하는 이 곳에도 마침내 주님을 만나 복음을 알게 되었지만, 토착화된 가톨릭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 개혁 주일'은 현지인들의 아픈 부분을 정확히 직시하고, 복음을 붙잡고 회개와 개혁의 불길을 끄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장 적합한 주일입니다. 심각한 도전으로 아직도 구습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교우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일이기에, 구원받은 우리 믿는 자들의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인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인간이 만든 잡다한 지식과 절차와 풍습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만으로 완성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기념 주일 예배 후, 매우 심각한 얼굴을 한 '타타' 형제로부터 당일 자신의 집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심방 요청의 이유가 너무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옷을 허둥지둥 갈아 입고, 인근 가게에서 쌀을 사서 '타타' 형제의 집을 심방하게 되었습니다.

디고스 예일교회에 출석하는 '타타' 형제의 가정은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장애가 있는 동생으로 교회에 출석한 지는 비교적 오래 되었지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 별다른 참여가 없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 중에 지난 5월 세례를 받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4주간 진행되는 세례자 예비 교육에 참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세례 받기를 포기했는데, 그 까닭은 가톨릭 신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소금' 성분이 있는 바닷물이나, '화학' 성분이 있는 수돗물로는 세례를 받으면 안되며, 예수님처럼 '강'에서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디고스 예일교회는 세례식을 교회 가까이 있는 바다에서 진행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타타' 형제는 바다가 아닌 순수한 (?) '강'에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중에 세례 받기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지만, 이를 통하여 저들의 삶 속에 토속화 된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어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타타' 형제는 자기가 가졌던 믿음에 대하여 많은 의문과 도전을 받게 되어, 매우 급하게 심방을 요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타타' 형제가 그동안 믿고, 알았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복음과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미신적인 것인지 확인 하고, 바로 잡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타타' 형제에 의하면 구원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기독교는 가톨릭에 비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타타' 형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대주의 세계관, 허무주의 세계관을 신봉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없거나, 또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반복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관된 삶의 원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절대에 대한 신뢰를 버린 대신 매우 불안한 자유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오랜 시간 시종일관 심각한 얼굴을 했던 '타타' 형제가 마침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 드릴 때,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그의 얼굴에 나타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례식에는 물 종류와 상관없이 세례를 꼭 받겠다는 약속까지 덧붙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랜 시간 시종일관 심각한 얼굴을 했던 '타타' 형제가 마침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 드릴 때,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그의 얼굴에 나타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례식에는 물 종류와 상관없이 세례를 꼭 받겠다는 약속까지 덧붙였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디고스 지역의 세 번째 교회 개척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5.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